JENESYS 2026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제 1～2 단) 파견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일본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교육관계자 등 61 명이 8 월 24 일부터 30 일까지, 앞으로의 일한 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방한하였습니다. 일행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파주시・고양시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종 시찰, 관련 강의 청강, 관계자와의 간담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일본의 매력과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일본의 교육관계자 등　총 61 명

【방문지】한국 (서울특별시 61 명, 경기도 성남시・파주시・고양시 61 명)

【일정】

■　사전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

7 월 25 일(토)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교류】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일단 참가자와의 온라인 의견교환회

■　파견프로그램 :

8 월 24 일(월)　인천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8 월 25 일(화)　환영식

(제 1 단)【학교방문・교류】서울행현초등학교(모의수업, 급식체험을 포함)

(제 2 단)【학교방문・교류】충암고등학교(모의수업, 급식체험을 포함)

8 월 26 일(수)　(제 1 단)【학교방문・교류】복정초등학교(모의수업, 급식체험을 포함)

(제 2 단)【학교방문・교류】샛별중학교(모의수업, 급식체험을 포함)

【시찰】남산타워

8 월 27 일(목)　【시찰】파주 비무장지대(DMZ), 현대 모터스튜디어 고양

8 월 28 일(금)　【예방・강의】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시찰】한국국립중앙박물관

【강의】한국의 교육 개요

【강의・문화체험】'한글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해', 부채 만들기

【교류】홈스테이 대면식

8 월 29 일(토)　홈스테이, 성과보고회

8 월 30 일(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2026 년 8 월 25 일【학교방문・교류】서울행현초등학교(일본 교원에 의한 모의수업 모습)</td><td>2026 년 8 월 26 일【학교방문 교류】샛별중학교(일본 교원에 의한 모의수업 모습)</td></tr>
<tr><td> </td><td> </td></tr>
<tr><td>2026 년 8 월 27 일【시찰】파주 비무장지대(DMZ)</td><td>2026 년 8 월 28 일【예방・강의】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td></tr>
<tr><td> </td><td> </td></tr>
<tr><td>2026 년 8 월 28 일【시찰】한국국립중앙박물관</td><td>2026 년 8 월 28 일【강의】한국의 교육 개요(전춘련 중원대학교대학원 교수)</td></tr>
<tr><td> </td><td> </td></tr>
<tr><td>2026 년 8 월 28 일【강의・문화체험】
‘한글 캘리그라피의 이해’, 부채 만들기</td><td>2026 년 8 월 29 일 홈스테이(올해 6 월 실시 방일단에 참가한 한국 교원 가정에 체류한 모습)</td></tr>
</table>

3. 참가자 소감(발췌)

◆ **일본 교원**

홈스테이를 통해 호스트 패밀리인 한국 교원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한국 교원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이나 고민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상대국의 장점에 대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이외에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교원으로써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일본 교원**

학교 방문 시에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 소중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일한 양국 학생들의 반응 차이, 이야기를 듣는 태도의 차이, 한국 선생님들의 지도방법의 차이에 대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학생들이 즐기는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 **일본 교원**

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선생님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어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 **일본 교원**

홈스테이가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한국 분들의 생활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스트가 한국 학교 교원이었기 때문에 일한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4. 한국측 소감(발췌)

◆ **서울행현초등학교 교류담당 교원** (2026 년도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일단 참가)

2026 년도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 방문학교로 선정되어, 일본 선생님들께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현장을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교육자로서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보람차고 기뻤습니다. 방문 행사는 단 하루였지만, 일본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학교 아이들은 몇 달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며 준비했던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쌓은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적 교류와 우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양국의 교육자와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복정초등학교 교류담당 교원** (2026 년도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일단 참가)

초청 행사는 본교 및 관내 교원들이 일본 교원들과 교육적 고민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야를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역시 준비한 환영 공연과 학교 투어 등에 큰 호응을 보내주신 일본 선생님들 덕분에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6 학년 학생들과의 면담에 친절

히 응해주신 덕분에 일본에 대해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형성된 관심과 흥미는 향후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교류수업으로 이어져 더욱 풍성한 교류 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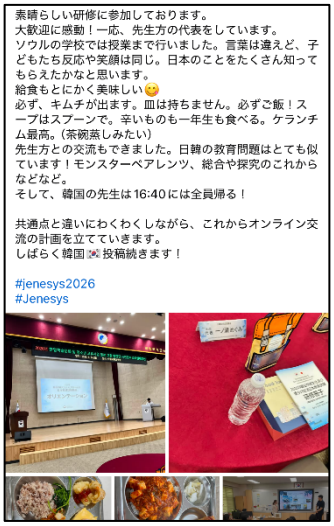
◆ **샛별중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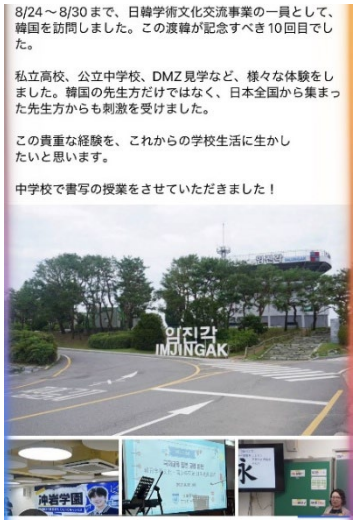
지난 8 월 26 일, 한일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교원 31 명이 샛별중학교를 찾아오자 학생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기모노를 입은 선생님 곁으로 앞다투어 몰려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스모 규칙을 함께 배우고, 교류회에서 양국 교원들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한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한일 교류 협력학교 교장으로서, 국경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교류의 의미를 되새긴 뜻깊은 하루였으며 이러한 기회가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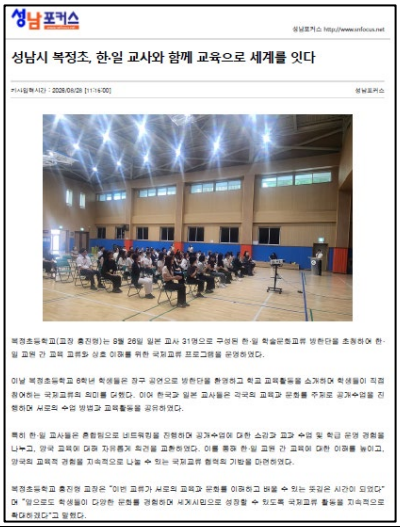
◆ **방한단과 교류 참가 교원** (2026 년도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일단 참가)

2026 년 6 월 방일단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따뜻한 환영과 진심을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방한단 선생님의 수업 통역과 홈스테이 등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보답하려던 마음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배움과 행복을 얻고 있다는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짧은 홈스테이 동안 소중한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교류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원의 역할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제가 받은 따뜻함을 학생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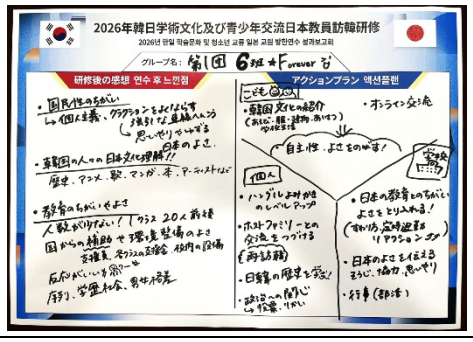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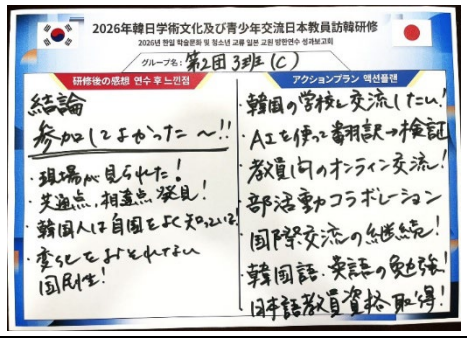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2026 년 8 월 25 일(Facebook)
멋진 연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환영에 감동!</td>
<td>2026 년 8 월 29 일(Instagram)
학교 방문과 수업 참관, DMZ, 국립중앙박물관,</td>
</tr>
</table>

서울의 학교에서는 직접 수업까지 실시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아이들의 반응과 미소는 똑같았습니다. 일본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한국 선생님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일한 양국의 교육문제는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학부모 대응과 '종합 학습(탐구) 시간'의 향후 등. 공통점과 차이점에 설렘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온라인 교류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홈스테이 등 실제로 한국의 교육・역사・문화・생활을 접하면서, 일본에만 있어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에 남았던 것은,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발신' 을 중요시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한편으로, 일본 교육이 중요시해 온 협조성의 장점에 대해서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각각의 장점을 알고 내 자신의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6.08.24-30 2026년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일본 교원 방한 연수 今回の研修で感じたことは、知ろうとすること、実際に体験することの大切さです。 小学校への訪問やホームステイ等を通して韓国の方々と言葉を交わす中で、国籍は違えど共感できるところや同じ悩みを抱え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実際に小学校で授業を行うことで、韓国の児童と関わり、日本のよさを伝えたり、韓国の教育の特徴について自身も学んだり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勇気を出して一歩踏み出し、研修へ参加したことでかけがえのない経験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今回の研修で終わりではなく、これから韓国の歴史や言語についてより詳しく学び、日韓をつなぐ架け橋となれるよう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jenesys2026 #Jenesys	
2026 년 8 월 29 일(X) (전략) 초등학교 방문과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것들과 같은 고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모의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일본의 좋은 점을 전달하면서, 제 자신도 한국 교육의 특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한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2026 년 8 월 29 일(Facebook) 8/24~8/30 까지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략) 사립고등학교, 공립중학교, DMZ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로부터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을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학교에서 서예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2026 년 8 월 28 일 (성남포커스) “성남시 샛별중학교, 일본 방한 교원단과 한일 문화교류 특별수업 열어” 일본 교원이 샛별중학교를 방문해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모의수업을 실시한 것, 인근 학교 교원도 참가한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교육에 관해 의견교환을 실시한 것에 더해 “뜻깊은 교류였다”는 샛별중학교의 소감을 소개.	2026 년 8 월 28 일 (성남포커스) “성남시 복정초, 한일 교원와 함께 교육으로 세계를 잇다” 일본 교원이 복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실시한 것 외에 복정초등학교 교원들과의 그룹토론을 통해 교과수업과 학급운영 등 상대국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에 대해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한 성과와 액션플랜 발표(개요 또는 발췌를 기재함)

	
【성과 발표】 ▪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실제로 교류해 보니, 한사람 한사람의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국제이해와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상상 이상으로 좋아서 많이 놀랐고,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분들도 많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과 발표】 ▪ 한국의 교육 현장 시찰,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일한 양국의 교육의 공통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과 일한 양국의 교육분야의 공통과제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실시했는데, 일본 교육의 뛰어난 점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액션 플랜】

【액션 플랜】 ・일한 쌍방이 상대국의 교육면에서의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위와 협력하거나 상대에게 양보하거나 하는 자세와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점 등 일본 교육면에서의 장점에 대해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 '영어' '사회' 수업시간에 한국 초등학교와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전교집회에서 소개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에게 교내연수를 개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 교원과 교류를 계속하고, 국제이해에 관한 수업과 부활동 교류등을 통한 교류를 기획하겠습니다. ・교내 교직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교육관련 연구회에도 널리 공유하여 일한 양국의 교원들을 잇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담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신하기 위한 언어학습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해외 분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일본어 교원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